



# 희망과 꿈으로 이루어낸 나의 방송사 정복기

+ 최형규 춘천CBS 디지털기술국

## 방송사 정복기

그토록 원하던 방송기술인이 되기까지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무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집념과 용기로 끝내 목표를 이루어낸 그 마음가짐과 희망을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2012년 12월, 졸업학기를 맞이하여 저는 여기저기 입사원서를 넣고 있었고 그 중 CBS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년간 같이 학교생활을 한 친구와 같이 입사지원서를 넣었고 안타깝게도 친구는 불합격하여 입사하지 못하였고 저만 홀로 합격하였습니다. 지면을 빌려 미안함과 고마움(?)을 같이 전하며 이 글을 읽으실 방송기술직 지원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비록 막 수습을 벗어난 풋내기 엔지니어이지만 글을 올려보도록 하였습니다.

## 남달랐던 취미 생활

정보통신공학도로서 방송기술직은 얼핏 보면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래밍이나 유무선 통신, 유비쿼터스, 4G LTE 등 주로 IT 쪽이나 통신사 쪽으로 입사하는 대학선배들이나 동기들이 많았고 교수님들 또한 방송기술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남달리 음악 감상이 취미였습니다. 고품질의 음원을 얻기 위해 도래 친구들에 비해 시대에 역행하는 음반 수집에 용돈을 투자하였고 좋은 이어폰, 헤드셋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구매한 음반에 들어있는 부클릿을 찬찬히 살펴며 해당 뮤지션이 지원받은 장비 업체들도 눈여겨보았는데, 현재 방송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슈어나 젠하이저의 제품들도 있었고 방송국에 입사하여서도 이러한 마이크/리시버 제조사들이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중고로 전자기타를 사서 친구들과 밴드도 만들려고도 해보았었고, 개인레슨도 받았는데 이때 레코딩이나 기타앰프, 폰 플러그 케이블 등을 접하며 음향엔지니어가 되어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가졌었습니다.

## 방송기술과의 만남

그러나 한국에서 음향엔지니어의 위상, 길잡이가 되어줄 교육과정 등이 체계적이지 않아 그 꿈은 접게 되었고 그나마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는 방송국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막연하게 떠올랐습니다. 방송국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정한 차림에 정갈한 표준어를 구사하는 아나운서나 사건사고발생 지역에 급급차보다 빨리 나타나는 기자,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듀서를 흔히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방송국에 대해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구인구직 사이트에 방송기술직이라는 글씨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준비**

제가 전공한 분야가 방송기술직에도 적용된다는 희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방송기술직에 필요한 자격증을 우선 준비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사와 무선설비기사를 준비하였고 지금 돌아보면 이때 배웠던 이론들이 단순히 자격을 얻기 위해 배우는 것들이 아닌 실제 사용되는 응용기술의 기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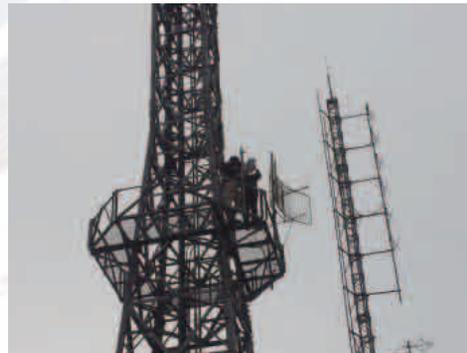
또한 최근의 방송기술 동향은 파일기반 방송제작, 무선망중

계, HD 방송을 위한 스토리지 등 엔지니어에게 IT 기술을 요구하는 실정이라 생각하기에 IT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기술에 대한 최신동향이나 정보는 전자신문이나 인터넷으로 자주 보았고, 궁금하거나 더욱 자세히 찾아볼만한 것들은 위키 백과나 구글링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군복무를 통신부대에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말국, 중계국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었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문제 또한 제한된 군주파수 안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 주파수 역시 일종의 자원개념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영상분야는 전공과목으로 있던 멀티미디어 공학시간에 재미있게 들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컬러 표현의 3가지 방법 (RGB, CMY, HSI), 영상압축기법(허프만 코딩, 프랙탈 압축), 4가지 영상처리 기법(포인트, 영역, 기하학, 프레임) 등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긴 하였지만 한 번 듣고 안 들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수습엔지니어를 거치며**

4달간의 수습기간은 방송엔지니어의 역할이 방송국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아가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습이 시작되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송신기 교체 작업과 송신기 원격제어기 설치작업이 이뤄져서 연주소 및 송신소 철탑에도 여러 번 올라간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부활절을 맞아 지역 교회 부활절 예배 녹화 중계준비, 공연 녹화 및 사운드 세팅 등은 음향엔지니어 쪽으로 조금이나마 직접 체득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간 겪고 느낀 방송엔지니어는 방송의 제작에도 결코 빠질 수 없는 분야이며, 일반적 방송패러다임에서 쌍방향 청취자 참여형 방송으로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는 방송의 미래를 책임지는 직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방송 송출 및 방송 품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경험하여 최고의 방송엔지니어로 성장하는 것이 저의 다음 목표입니다.

**다음 도전자를 위해**

지금까지 부족하고 어설피지만 나름대로 방송사 입사에 관한 노하우를 풀어 놓은 것 같습니다. 풀어놓은 것을 한 마디로 줄이자면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기술직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요구하는 조건과 평가유형을 숙지한 뒤 거기에 맞춰 자신의 현재를 직시하고 거기에 맞게 바꾸어 나가고 발전해나가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립니다. 이 글을 읽으신 많은 지원자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